

##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11:11-24(현대인의 성경)

### 1. 말씀

11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영영 패망하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의 범죄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을 보고 질투하게 하셨습니다.

12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더욱더 큰 축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13 나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니 내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14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동족의 마음속에 질투심을 불러일으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5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결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 주실 때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을 것입니다.

16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합니다.

17 참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이고 돌감람나무인 여러분이 거기에 접붙여져서 참감람나무 뿌리의 양분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18 그렇다면 접붙임을 받은 여러분은 그 꺾인 가지들에 대해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랑하여도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19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의 접붙임을 위해서 가지들이 꺾여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20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으므로 꺾여졌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접붙여졌으니 고만하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21 하나님께서 원 가지인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이방인인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2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엄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23 꺾인 가지와 같은 유대인들도 그들의 불신앙만 버린다면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24 원래 돌감람나무였던 여러분이 거기서 잘려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을 본래의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일이야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 3. 메시지

- 바울은 이방인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했나요? (11-14절)

→ \_\_\_\_\_

-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왔습니까?(12절)

→ \_\_\_\_\_

- 처음 익은 곡식’과 ‘감람나무 가지’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17-24절)

→ \_\_\_\_\_

- 교회나 신앙생활 속에서 “자랑”하거나 “우월함”을 느낄 때는 언제 인가요? 반대로 열등감을 느낄 때는 언제 인가요?

→ \_\_\_\_\_

-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방법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최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순간이 있었나요? 어떻게 느꼈습니까? 또는 사람의 실패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 \_\_\_\_\_

####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과거 실패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교만해질 때, 나는 어떻게 겸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 \_\_\_\_\_

####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1:11-24(이방인들의 구원)

바울은 이스라엘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넘어진 것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사의 한 과정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정된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일정 기간 버려질 수는 있으나, 선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무효화될 수 없으며, 결국은 구원으로 인도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분의 계획 속에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들을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셨지만, 그들이 가진 생명은 자기들 것이 아니고 뿌리에서 얻은 것이기에, 자랑할 이유가 없다고 교훈합니다. 이스라엘은 참감람나무 가지였으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랑만 일삼다가 꺾여졌 듯이 돌감람나무도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는 것이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일을 잘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세울 이유가 없음에도 자신의 위치를 잊고 위세를 부리는 일이 많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곤 합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구원을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 6. 기도